

##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教室<sup>1</sup>

金振鏞<sup>1, \*</sup>

### Integrating Study of Kidney on Left & Life Gate on Right(左腎右命門) and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腎間動氣)

Kim Jin-ho<sup>1, \*</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 : There was no attempt to understand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腎間動氣) and Kidney on Left & Life Gate on Right(左腎右命門) by integration progress. So I have faced to study based on two parts with concerning as clues. One is 'Life-Right(左·右)' and the other is 'Between(間)'.

**Methods** : Revealing the source of the origin, *Nanjingbenyi*(難經本義) is given on the basis. Take a close look at publications related to *Nanjing*(難經) which is about Kidney on Left & Life Gate on Right and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 Take a close look at Kidney, the Life Gate and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 Look see the three-dimensional uplift movement of Gi(氣).

**Results** : In *Neijing*(內經) and *Nanjing*, the basic point of view for Kidney is the same. That is explained in line with attributes of convergence(收斂). 'Life Gate(命門)' is a term to express the divergence feature(發散機能) of kidney.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 is used to mean the mainspring of human body activity. The Gi in human body loses altitude turning left(左旋而下降) and gains height turning right(右旋而上升).

**Conclusion** : Watching on functional aspect, there are two names for kidney. One is 'Kidney(腎)' which collects the losing altitude turning left and the other is 'Life Gate' which rises turning right. Moreover, the fundamental power that effectuate the uplift movement is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 This kind model is a way that can be understood syntagmatically the Kidney on Left & Life Gate on Right and the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 without any gainsaying the original of *Nanjing*.

**Key Words** : Kidney on Left & Life Gate on Right(左腎右命門), Moving Energy between two kidneys(腎間動氣), lose altitude turning left(左旋而下降), gain height turning right(右旋而上升), uplift movement(升降)

## I. 서론

『難經』은 問難의 형식으로 古醫經을 해석한 이론서이다. 全書는 모두 81개 문제를 토론하였으므로 ‘八十一難’이라 칭하는데, 토론한 문제는 대부분이 『內經』에 제시된 것이다. 주요한 내용은 脈診, 經絡, 臟腑, 俞穴, 鍼刺 및 일부분 질병을 포괄하고 있는데<sup>1)</sup>, 이 가운데 臟腑부분에서의 특징인 左腎右命門說의 제창은 『難經』이 장상이론에 미친 큰 공헌 가운데 하나이다<sup>2)</sup>. 여기서 제시된 命門에 대하여, 『內經』과 『難經』에서의 뜻이 같지 않고, 兩腎을 左右로 구분하여 左腎을 腎이라 하고 右腎을 命門이라 인식한 까닭에 左腎右命門說은 후세 의가들에 의해 끊임없는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左腎右命門說에 대한 연구와 논쟁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된 핵심은 左腎右命門說에서의 左와 右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다. 즉 左와 右를 위치적인 左右의 구분으로 볼 것인지, 혹은 腎기능을 구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左右를 언급한 經文을 부정할 것인가가 그 대강이라 하겠다<sup>3)</sup>.

한편 腎間動氣의 내용은 左腎右命門說과 아울러 후세 命門학설의 先端을 여는 계기가 되었음<sup>4)</sup>에도 불구하고, ‘右命門’에 대한 여러 의가들의 說이 분분하여 통일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 命門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오늘날 국내에서는 「命門相火에 對한 考察」<sup>5)</sup>을 비롯하여 「命門에 對한 考察」<sup>6)</sup>, 「命門에 관한 文獻

的 考察」<sup>7)</sup> 등과 최근의 「命門學說에 대한 知覺論적 해석」<sup>8)</sup>에 이르기까지 命門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연구<sup>9)</sup>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腎間動氣를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없었기에, 본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36, 39難에서 언급된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其左爲腎, 右爲命門)”에서의 ‘左·右’와 8, 66難에서 언급된 “腎間動氣”의 ‘間’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통합적인 이해를 위한 하나의 모형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연구방법

1. 『難經』과 관련된 서적들 중에서 81개 難의 순서가 서로 相異한 경우가 있으므로, 『難經』原文의 출처를 밝힐 때에는 『難經本義』<sup>10)</sup>를 底本으로 하였다.

2.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된 대상은 命門과 腎間動氣이다. 따라서

첫째, 左腎右命門說과 腎間動氣에 대한 『難經』 관련 서적들<sup>11)</sup>의 견해를 살펴본다. 다만, 命門과 腎間動氣의 관련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둘째, 腎은 『難經』 이전의 『內經』에서부터 있던 용어이다. 이에 『難經』에 나타난 腎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內經』의 그것과 相異한지 여부를 파악한다.

\* 교신저자 : 金振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kjh95184@hanmail.net Tel : 010-6277-8315  
접수일(2013년 10월23일), 수정일(2013년 11월14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1) 홍원식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p.95.  
2) 최승훈 譯. 難經入門. 서울. 법민문화사. 1998. p.194.  
3)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p.615-616.  
4) 홍원식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p.95.  
5) 강병기. 命門相火에 對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81. 2(1).  
6) 이용태, 김원희. 命門에 對한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1988.

3(2).

7) 신흥목, 김길원. 命門에 관한 文獻的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1992. 7(1).  
8) 은석민. 命門學說에 대한 知覺論적 해석. 대한한의학회지. 2011. 24(6).  
9) 命門과 관련하여 20여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앞선 4편의 연구물로써 전체를 대신하고자 한다.  
10)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1) 『難經』 8, 36, 39, 66難의 원문(특히 左와 右)에 대하여 醫家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 중 하나이며, 아울러 命門과 腎間動氣 兩者 間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難經』의 註釋書 및 관련 서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難經』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右者爲)命門과 腎間動氣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바탕으로, 氣의 입체적인 승강운동에 대해 살펴본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하여, 통합적 이해를 위한 모형을 ‘고찰’에서 살펴본다.

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3. 본문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左腎, 右腎, 兩腎 : 위치적으로 각각 人身의 左側, 右側, 兩側에 있는 腎을 말한다.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 위(上, 天)에서 아래(下, 地)로 내려다보았을 때 관찰되는 방향을 말하며, 한 의학의 발생이 북반구에서 기원하는 만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다.

### III. 본 론

#### 1. 『難經』의 註釋書 및 관련 서적에 나타난 左腎右命門說과 腎間動氣

역대로 『難經』에 대하여 많은 의가들이 주석을 달고 연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難經本義』<sup>12)</sup>, 『圖註八十一難經』<sup>13)</sup>, 『難經懸解』<sup>14)</sup>, 『中國醫藥匯海·難經』<sup>15)</sup>, 『難經譯釋』<sup>16)</sup>, 『難經校注』<sup>17)</sup>, 『難經疏證』<sup>18)</sup>, 『盧經哀腋』<sup>19)</sup>, 『難經之研究』<sup>20)</sup>, 『難經入門』

』<sup>21)</sup>, 『難經研究集成』<sup>22)</sup>, 『황제내경의 난경』<sup>23)</sup>, 『難經臨床學習參考』<sup>24)</sup>, 『難經』<sup>25)</sup> 등등의 서적이 命門이나 腎間動氣에 관하여 여러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적들은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左腎右命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腎間動氣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sup>26)</sup>하였고, 兩者 間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한 『難經集註』, 『難經釋釋』, 『古本難經闡註』, 『難經正義』, 『難經今釋』, 『難經古義』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難經集註』<sup>27)</sup>

楊氏는 “腎雖有兩而一非腎”<sup>28)</sup>이라 하여 우선적으로 左腎右命門說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인체 내에서의 左腎과 右腎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즉 命門을 설명함에 있어 “右手尺中爲神門脈,……神門者, 元氣之宗始, 故云精神之所舍也, 神門, 亦命門也.”<sup>29)</sup>라고 하여 左尺에서 腎을 살피고 右尺에서

20) 本間祥白 著.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21) 최승훈 譯. 難經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1998.

22)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23) 池田政一 지음, 노지연 옮김. 황제내경의 난경. 서울. 청흥. 2002.

24) 遲華基 外3人 編著. 難經臨床學習參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25)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편자.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26) 『中國醫藥匯海·難經』나 『難經研究集成』 등에 命門과 신간 동기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는 이전 저작들의 내용을 자료수집 측면에서 인용한 것이다. 출처가 되는 원서들에 대한 검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 졌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재인용부분은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다만 뒤에 언급될 『難經集註』는 출처가 되는 원서들이 이미 유실된 관계로 위의 서적들과 경우를 달리한다. 따라서 대상에 포함하였다.

27) 『難經集註』에 수록된 5인의 註 중에서 楊氏의 註가 연구 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 『難經集註』의 跋文에 의하면 주석가 중 楊氏는 楊玄操와 楊康侯 2명이다. 그러나 둘 사이의 구분 없이 모두 ‘楊氏’로 표현되어 註가 달려 있다. 구분이 어려워 여기서는 함께 살펴보았다.

28)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74年. p.190.

29)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74年. p.190.

12)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3) 張世賢 註, 吳棋鏞 譯. 校正圖註八十一難經. 원주. 영서신문사. 1999.

14) 黃元御 撰. 難經懸解(黃元御醫書十一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5) 蔡陸仙 編. 中國醫藥匯海·難經. 서울. 성보사. 1976.

16) 南京中醫學院 編著. 難經譯釋. 서울. 정담. 1993. (실제 정담출판사에서 나온 『難經譯釋』에는 저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難經研究集成』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南京中醫學院經敎研組에서 編著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충하여 기재하였음을 밝혀둔다.)

17)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18) 『難經研究集成』에 인용된 註解를 참고하였다.

19) 加藤宗博 著.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命門을 살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腎間動氣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齊下腎間動氣者, 丹田也. 丹田者, 人之根本也, 精神之所藏, ……附著脊脈兩腎之根”<sup>30)</sup>이라고 하여 兩腎간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命門을 설명하면서 “精神之所舍”라 하였고 腎間動氣를 설명하면서 “精神之所藏”이라 하였으니, 종합하면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하였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腎을 左尺에서 살피고 腎間動氣(命門)를 右尺에서 살핀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兩(腎)→左(尺)’와 ‘中(腎間, 命門)→右(尺)’의 연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 2) 『難經經釋』

“若腎之有兩, 則皆名爲腎, 不得名爲命門”이라 하고 “其氣雖與腎通, 然不得以右腎當之也”라고 하여 左腎右命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命門은 衝脈의 根柢라고 생각하였다. 즉 衝脈이 일어나는 근원되는 장소는 兩腎의 사이에 해당되며, 이곳을 ‘命之門’이라 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31)</sup>. 腎間動氣와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66難에서 臍下腎間動氣인 原과 三焦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此卽三十六難所云命門, 乃三焦之所本也”<sup>32)</sup>라고 하였으니, 결국 命門 = 三焦之所本 = 腎間動氣 라고 인식한 것이다. 한편 腎이 2개인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右主腎中之火, 左主腎中之水, 各有所司耳.”<sup>33)</sup>라고 하였는데, 命門을 腎間動氣로 인식한 점을 감안한다면 ‘右主腎中之火’와 ‘右者爲命門’이 어떤 관계인지 의문시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經文을 부정하였다는 것은 큰 결함들이다.

### 3) 『古本難經關註』

“惟是右腎爲命門, 男子藏精, 女子繫胞, 則腎藏將

何物, 此又無怪乎其疑也”<sup>34)</sup>라고 하여 左腎右命門說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復發明命門在於兩腎中間之義”<sup>35)</sup>라고 하여 命門은 兩腎 間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所謂生氣之原者, 卽兩腎中間命門原也.”<sup>36)</sup>라 하였고, 또 “男子藏精, 女子繫胞, 皆有歸着, 正合六十六難, 臍下腎間動氣之說, 而千古之疑, 可頓釋矣.”<sup>37)</sup>라 하여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하였다. 아울러 “天一之眞陰, 藏於兩腎中間命門之原, 而氣通於左, 坎中之眞陽, 藏於兩腎中間命門之原, 而氣通於右, 故左腎爲水, 右腎爲火”<sup>38)</sup>라고 하여 兩腎 間에 위치한 命門之原(腎間動氣)에 저장되었던 眞陰과 眞陽이 각각 左腎과 右腎을 통하여 水와 火로 발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藏精·繫胞에 있어서는 左右를 구분하려 하지 않으면서 水火에 있어서는 左右를 구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며, 經文에 대한 부정 및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한 점은 기본적인 문제점이자 의문점이라 하겠다.

### 4) 『難經正義』

“以氣脈論之, 水升于左, 火降于右, 左右者, 陰陽之道路, 升降之樞機, ……故左名腎, 右名命門”<sup>39)</sup>이라고 하여, 左腎右命門說을 氣脈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수용하였으며, 동시에 “夫兩腎, 屬水, 中間腎系, 屬火, 卽命門也”<sup>40)</sup>라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兩腎 間의 腎系를 命門으로 보았다. 腎間動氣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三焦之根, 起於腎間命門, 人之生命之原, 十二經之根本”<sup>41)</sup>이라고 하여 兩腎 間에

30)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74年. p.270.

31) 徐大椿 撰. 難經經釋(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8.

32) 徐大椿 撰. 難經經釋(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0.

33) 徐大椿 撰. 難經經釋(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8.

34) 丁錦 著. 古本難經關註(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5.

35) 丁錦 著. 古本難經關註(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5.

36) 丁錦 著. 古本難經關註(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1.

37) 丁錦 著. 古本難經關註(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5.

38) 丁錦 著. 古本難經關註(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5.

39) 葉霖 撰. 難經正義(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7.

40) 葉霖 撰. 難經正義(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7.

위치한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兩腎에서 水升于左하고 兩腎 중간에 위치한 腎系인 命門으로 火降于右한다는 점과 命門을 腎間動氣로 인식한 점은 『難經集注』의 견해와 비슷한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5) 『難經今釋』

命門과 腎間動氣의 관계에 대해 “三焦之根, 起於 腎間命門, 亦即臍下腎間動氣, 又稱丹田”<sup>42)</sup>이라 하여 동일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체 내에서 命門의 위치를 “命門在人體的位置, 是在兩腎的中間”<sup>43)</sup>이라 하여, 兩腎의 중간으로 보고 있다. 한편 左腎右命門에 대해서는 “本篇所謂左與右, 是指左尺候腎, 右尺候命門”<sup>44)</sup>이라 하여, 左와 右를 각각 左尺과 右尺으로 인식하였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左腎右命門의 左腎과 右命門은 각각 左尺에서 腎을 살피고 右尺에서 命門을 살핀다는 뜻이며, 실질적이고 위치적인 면에서 腎은 兩腎을 가리키고 命門은 兩腎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兩腎을 左尺에서 살피며 兩腎의 사이에 있는 腎間動氣인 命門을 右尺에서 살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難經集注』나 『難經正義』의 견해와 비슷한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역시 ‘兩(腎)→左(尺)’와 ‘中(腎間, 命門)→右(尺)’의 연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6) 『難經古義』

“故左爲腎, 右爲命門, 實知一藏中寓陰陽二氣焉”<sup>45)</sup>이라 하였으니, 兩腎은 腎臟을 뜻하고 左(腎)와 右(命門)는 신장에 깃든 陰陽二氣를 뜻한다고 보았다. 즉 命門을 腎臟에 깃든 陰陽二氣 중의 하나로

본 것이다. 한편 “天真之氣, 自然寓於腎間命門之宮, 是謂生氣之原”<sup>46)</sup>이라 하고, 또 “命門者, 諸神精之所舍云云數語, 全遷其位於中間者, 明矣”<sup>47)</sup>라 하여 命門을 腎間動氣와 동일시하면서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命門(腎間動氣)이 兩腎 사이에 위치했을 때 陰陽二氣 중의 다른 하나일 것으로 추측되는 陰氣는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의문시되며, 만약 陰氣가 兩腎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經文에 나타난 ‘左’와 ‘右’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상 6종의 서적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難經』원문에 대한 부정이고, 둘째는 ‘兩(腎)→左’와 ‘中(腎間, 腎系)→右’로 연계되어지는 구조적 문제점과 ‘左’와 ‘右’가 갖는 의미 등 ‘左·右’에 대한 문제이며, 셋째는 命門과 腎間動氣간의 동일시에 대한 의문이고, 넷째는 腎과 命門의 구분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腎·命門·腎間動氣간의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難經』원문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상의 4가지 문제를 일시에 적절히 해소할 만한 이론 내지는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2. 『難經』에 나타난 신의 개념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에 대해 언급된 8, 36, 39, 66難을 제외한 『難經』의 全篇에서 腎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하초·深部로 설명한 腎

448), 1149), 1650), 56難<sup>51)</sup> 등에서는 인신의 下

41) 葉霖 撰. 難經正義(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9.  
 42) 唐湘清 編著.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民國72年. p.250.  
 43) 唐湘清 編著.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民國72年. p.145.  
 44) 唐湘清 編著.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民國72年. p.145.  
 45) 滕萬卿 撰. 難經古義(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1.

46) 滕萬卿 撰. 難經古義(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5.  
 47) 滕萬卿 撰. 難經古義(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1.  
 48)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50. “吸入腎與肝”  
 49)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54. “人吸者, 隨陰入, 呼者, 因陽出, 今吸不能至腎, 至肝而還, 故知一臟無氣者, 腎氣先盡也.”

部, 즉 下焦에 위치한 장기로서의 腎에 대해 설명하였고, 52), 1253), 1554), 4955), 70難56) 등에서는 脈과 刺鍼에 있어서의 深部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 2) 藏의 기능을 가진 腎

34難에서 “腎藏精與志也”<sup>57)</sup>라 하였고, 1458), 42難59)에서도 腎과 精·志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는 15難에서 말한 “萬物之所藏”<sup>60)</sup>으로서의 腎을 설명한 것이다.

#### 3) 五行적 관계에서의 腎

3461), 3762), 4063), 4964), 74難65)에서 腎을 黑·

腐臭·鹹·呻·唾·耳·北方·水·濕·冬·合(穴) 등과 연결 지었으니, 이는 五行歸類적 측면에서 腎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4) 기타

35難66)에서는 膀胱과 相合함을 설명하였고, 49, 56難에서는 각각 “其病身熱而小腹脹, 足脛寒而逆, 其脈沈濡而大.”<sup>67)</sup>, “腎之積, 名曰賁豚, 發於少腹, 上至心下, 若豚狀, 或上或下無時, 久不已, 令人喘逆, 骨痠少氣, 以夏丙丁日得之.”<sup>68)</sup>라 하여, 腎과 관계된 증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難經』에서는 여러 物象을 比類한 결과 水로 大別되는 것들을 腎에 배속하였으며, 이러한 腎은 膀胱과 相合하며 인신의 下部에 위치하고 藏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診脈이나 刺鍼시에는 深部를 그 대상으로 삼았으니, 下部에 위치한 腎의 위치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腎의 개념은 증상들의 표현에 있어서도 유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難經』에 나타난 腎의 이러한 개념들은, (其左者爲) 腎의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sup>69)</sup>, 주지하다시피 『內經』에서 腎의 기능을 대부분 ‘水藏’의 속성과 연관 지어 설명한 것<sup>70)</sup>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內經』과 『難經』에서 腎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같다고 하겠다.

### 3. 『難經』에 나타난 (右者爲)命門과 腎間動氣

문화사. 1995. p.488. “入腎爲黑”, “入腎爲腐臭”, “入腎爲鹹”, “入腎爲呻”, “腎主濕, ……自入爲唾.”

65)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03. “冬刺合者, 邪在腎.”

66)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0. “膀胱者, 腎之府”

67)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8.

68)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92.

69) 本間祥白 著.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p.245.

70) 張宇鵬. 『黃帝內經』藏象學理論體系的主要內容與結構簡析.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1). p.127.

50)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63. “假令得腎脈, ……其內證, 齊下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 逆氣, 少腹急痛, 泄如下重, 足脛寒而逆, 有是者腎也, 無是者非也.”

51)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92. “腎之積, 名曰賁豚, 發於少腹”

52)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51. “按之至骨, 舉指來疾者, 腎部也.”

53)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55. “五臟脈已絕於內者, 腎肝氣已絕於內也, 而醫反補其心肺, 五臟脈已絕於外者, 其心肺脈已絕於外也, 而醫反補其腎肝.”

54)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60. “冬脈石者, 腎北方水也, 萬物之所藏也, 盛冬之時, 水凝如石, 故其脈之來, 沈濡而滑, 故曰石.”

55)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8. “其脈沈濡而大”

56)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02. “春夏溫, 必致一陰者, 初下針, 沈之至腎肝之部, 得氣引持之陰也.”

57)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79.

58)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57. “損其腎者, 益其精.”

59)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4. “腎有兩枝, 重一斤二兩, 主藏志.”

60)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60.

61)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79. “腎色黑, 其臭腐, 其味鹹, 其聲呻, 其液唾.”

62)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1. “腎氣通於耳”

63)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3. “腎者北方水也”

64)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

『難經』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右者爲)命門과 腎間動氣에 대해, 原文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위의 두 용어가 언급된 8, 36, 39, 66難의 원문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八難曰：寸口脈平而死者，何謂也？然，諸十二經脈者，皆係於生氣之原，所謂生氣之原者，謂十二經之根本也，謂腎間動氣也，此五藏六府之本，十二經脈之根，呼吸之門，三焦之原，一名守邪之神。故氣者，人之根本也。根絕則莖葉枯矣，寸口脈平而死者，生氣獨絕於內也。”<sup>71)</sup>

“三十六難曰：藏各有一耳，腎獨有兩者，何也？然，腎兩者，非皆腎也。其左者爲腎，右者爲命門，命門者，諸精神之所舍，原氣之所繫也。男子以藏精，女子以繫胞。故知腎有一也。”<sup>72)</sup>

“三十九難曰：經言府有五，藏有六者，何也？然，六府者，正有五府也。五藏亦有六藏者，謂腎有兩藏也。其左爲腎，右爲命門。命門者，精神之所舍也。男子以藏精，女子以繫胞，其氣與腎通。故言藏有六也。府有五者，何也？然，五藏各一府，三焦亦是一府，然不屬於五藏。故言府有五焉。”<sup>73)</sup>

“六十六難曰：經言肺之原出於太淵，心之原出於太陵，肝之原出於太衝，脾之原出於太白，腎之原出於太谿，少陰之原出於兌骨，膽之原出於丘墟，胃之原出於衝陽，三焦之原出於陽池，膀胱之原出於京骨，大腸之原出於合谷，小腸之原出於腕骨。十二經皆以俞爲原者，何也？然，五藏俞者，三焦之所行，氣之所留止也。三焦所行之俞爲原者，何也？然，臍下腎間動氣，人之生命也，十二經之根本也，故名曰原。三焦者，原氣之別使也，主通行三氣，經歷於五藏六府。原者，三焦之尊號也。故所止輒爲原，五藏六府之有病者，皆取其原

也。”<sup>74)</sup>

이상 4편의 難에 나타난 (右者爲)命門과 腎間動氣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右者爲)命門

‘右者爲命門’과 ‘右爲命門’이라고 표현된 命門은 神精과 精神<sup>75)</sup>이 머무르는 곳으로, 原氣와 연계되어 있으며, 命門의 氣는 腎과 通한다. 그리고 男子인 경우 精을 저장하고 女子인 경우 胞와 연계되어 있다.

한편 15難에서 腎은 “萬物之所藏”이라 하였고, 34難에서는 구체적으로 “腎藏精”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여기서 살펴본 命門의 (男子以)藏精기능과 일치하는 바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腎과 命門은 공통된 하나의 근원적 대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라고 보아야 한다. 즉 藏精하는 기능을 가진, 傳來되어온 ‘腎臟’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서 모종의 경우에 따라 (其左者爲)腎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右者爲)命門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內經』과 『難經』에서 腎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같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內經』에 비해 腎臟의 특정 부분이나 기능을 강조하거나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難經』에서 사용된 용어가 ‘命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또 다른 근거가 있으니, 42難에서는 다른 臟腑와 함께 평이하게 서술하면서 “腎有兩枚”라고 표현한 반면 36難<sup>76)</sup>과 39難<sup>77)</sup>에서는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左·右’로 구분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腎臟은 兩腎을 가리키며 모종의 경우에 있어서 ‘左·右’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71)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53.

72)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0.

73)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2.

74)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p.499-500.

75) 36難의 神精과 39難의 精神이 같은 것인가에 대해 異見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難經研究集成』에서는 각각의 說들을 살펴보고 같은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견해를 따른다.(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p.616-617.)

76) “腎獨有兩者，何也?”

77) “藏有六者，何也?”

말이 된다<sup>78)</sup>. 腎臟을 어떤 경우에 ‘其左者爲腎’ 또는 ‘右者爲命門’이라고 표현하는 지에 대해서는 뒤의 고찰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腎間動氣

‘生氣之原’이라고 하는데, 이는 五臟六腑의 本이며 十二經脈의 根이고 呼吸의 門이며 三焦의 原으로, 一名 ‘守邪之神’이라고 불린다. 이 動氣는 臍下에 있으며 사람의 根本이자 生命이다. 다시 말해 腎間動氣는, 작게는 五臟六腑·十二經脈·呼吸·三焦의 門이자 근본이지만 크게는 사람의 근본이자 生命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38難의 “有原氣之別焉, 主持諸氣”<sup>79)</sup>와 함께 살펴보면, ‘腎間動氣는 原氣이다.’라고 명시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체 생명활동의 원동력<sup>80)</sup>으로서 “五藏六府之本”이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君主之官인 心이나 藏精의 기능을 가진 腎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근본이자 생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더 앞선 상위개념인 것이다. ‘인체 생명활동의 원동력’ 내지는 ‘사람의 근본이자 생명’을 뜻하기 위해 사용된 이 용어는 『內經』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으니, 다음과 같다.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生死之本也”<sup>81)</sup>-『四氣調神大論』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于陰陽. ……此壽命之本也”<sup>82)</sup>-『生氣通天論』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也,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sup>83)</sup>-『陰陽應象大論』

78) 이와 관련하여 『難經研究集成』에서는 “左右라는 二字는 腎의 機能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하나는 腎이고 또 하나는 命門이라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191.)

79)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82.

80) 遲華基 外3人 編著. 難經臨床學習參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56.

81)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18.

82)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p.20-21.

“夫五運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sup>84)</sup>-『天元紀大論』<sup>85)</sup>

이상에 나타난 문장들을 보면 天地自然과 그 안에 존재하는 萬物들의 근본적인 힘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힘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으로서, 그 變化象이 陰陽이나 四時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陰陽은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四時は 一年의 계절변화를 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인체라는 보다 작은 대상의 근본적인 힘을 나타내기에는 전문성이나 자세함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難經』 시대에 와서 이러한 힘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과정 내지는 결과물로서 ‘腎間動氣’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內經』에 나타난 우주론적 생명의 근원에 대한 표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가 축소되면서 『難經』을 통하여 새로운 용어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 3) 추가 고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으니, 命門에 대한 표현과 腎間動氣에 대한 표현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命門에 대해 표현한 36難과 39難을 살펴보면 ‘神精-精神’의 顛倒와 문구의 加減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일치하며, 腎間動氣에 대해 표현한 8難과 66難을 살펴봐도 ‘人之根本-人之生命’의 표현상의 차이와 약간의 加減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일치한다. 이처럼 두 가지 용어에 대해 각각 반복적이면서도 같은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難經』의 저자가 이 둘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고, 아울러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

83)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2.

84)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492.

85) 王冰이 補入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運氣七篇’ 중의 하나로서 시기적으로 『難經』이후의 자료지만, 『陰陽應象大論』의 내용과 크게 중복되는 관계로 『內經』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같이 살펴보았다.



서 살폈듯이 命門이 腎과 함께 腎臟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점과 腎間動氣가 사람의 근본이자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腎臟보다 더 상위 개념의 용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命門과 腎間動氣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 4. 氣의 升降에 대한 입체적 이해

앞의 연구를 통하여, ‘本論’의 ‘1’ 말미에서 언급된 4가지 문제 가운데 2가지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腎臟은 兩腎을 가리키며, 경우에 따라 ‘命門’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할 수 있고, 이 命門은 腎間動氣와는 동일시 할 수 없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람의 근본이자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腎間動氣가 보다 상위의 개념에 해당된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문제인, 『難經』원문에 대한 부정과 ‘左·右’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氣의 입체적 승강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升降은 氣의 운동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서<sup>86)</sup>, 만물이 지니는 생명활동의 다양한 변화상을 일으키는 기본 형식이자<sup>87)</sup> 세상만물을 生化하는 근원이 된다<sup>88)</sup>. 인체도 역시 이러한 승강으로써 생명활동의 기본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끊임없는 승강운동을 통해 氣血·津液·陰陽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게 되어 생명활동이 유지되는 것이다<sup>89)</sup>.

天人相應은 『黃帝內經』의 기본사상으로서, 고대 醫家들은 이 이론에 입각하여 人體內 氣의 升降까지도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관찰하려고 했다<sup>90)</sup>. 예를 들어 「陰陽應象大論」에서는 雲雨의 升降을 비유하여 인체 내의 升降을 설명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자연현상의 이치를 파악하여 인간에 적용함으로써 체내의 여러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sup>91)</sup>.

이에 논자는 天人相應적 관점에서, 인체 내의 氣의 입체적 升降運動을 쉽게 알기 위하여 자연계의 升降運動에 주목하였다. 그 대상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관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교가 가능한 상승과 하강운동이며, 上下의 폭이 좁은 미시적인 현상보다는 폭이 넓은 거시적인 현상이 天地의 氣의 입체적 운동변화를 살피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선택한 관찰대상은 氣壓이다. 기압은 공기가 지표면에 가하는 압력을 말하는 것으로<sup>92)</sup>, 크게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눌 수 있다.

고기압은 고도가 같은 어떤 수평면에서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구역을 말하는데, 이 구역에서는 상층에서 수렴현상이 있고 하층에서 발산현상이 있어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93)</sup>. 상층에서 하층으로 기류가 하강하는 중에 공기밀도의 차이에 의해 고기압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는데, 북반구에서는 轉向力<sup>94)</sup>의 영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가게 된다<sup>95)</sup>.

저기압은 동일한 고도 면에서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구역을 말하는데, 이 구역에서는 하층에서 수렴현상이 있고 상층에서 발산현상이 있어서 상승기

86) 정호진. 升降의 原動力에 관한 考察:脾胃와 命門을 中心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0. 14(1). p.55.

87) 정호진. 升降의 原動力에 관한 考察:脾胃와 命門을 中心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0. 14(1). p.57.

88) 문수영 외 3人. 升降의 韓醫學의 概念과 人體 및 自然界의 升降運動에 대하여. 대한의리기공학회지. 2000. 4(1). p.98.

89) 문수영 외 3人. 升降의 韓醫學의 概念과 人體 및 自然界의 升降運動에 대하여. 대한의리기공학회지. 2000. 4(1). p.98.

90) 김완희, 최달영 共編. 臟腑辨證論治. 서울. 성보사. 1988. p.78.

91) 문수영 외 3人. 升降의 韓醫學의 概念과 人體 및 自然界의 升降運動에 대하여. 대한의리기공학회지. 2000. 4(1). p.104.

92) 이승호. 기후학. 서울. 푸른길. 2007. p.161.

93) 이승호. 기후학. 서울. 푸른길. 2007. p.97.

94) 전향력(轉向力) : 지구 대기가 순환을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구의 자전, 즉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힘이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고위도나 저위도나 일정하지만, 하나의 經線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 경선간의 거리는 차이가 생긴다. 이를 線속도라고 하는데, 고위도에서는 선속도가 느리고 저위도에서는 선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와 바람의 진행방향은 휘어지게 되는데,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휘어진다는 것은 힘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힘을,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뜻으로, ‘전향력’이라고 한다. 코리올리가 발견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코리올리 힘(Coriolis effect)’이라고도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송은영. 코리올리가 들려주는 대기현상 이야기. 서울. 자음과모음. 2005. pp.26-35.’ 참조.

95) 이승호. 기후학. 서울. 푸른길. 2007. pp.98-99.

류가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96</sup>). 하층에서 상층으로 기류가 상승하는 중에 공기밀도의 차이에 의해 주변에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들게 되는데,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의 영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든다<sup>97</sup>).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나사못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위에서 아래로 나사못을 박을 때, 나사못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려간다(즉, 박힌다). 이는 고기압의 경우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반대로 나사못을 뽑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간다(즉, 뽑힌다). 이는 저기압의 경우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드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나사못의 머리를  $\pi$  이라 보고 끝의 尖銳한 부분을  $\theta$  이라 하면, 天地가 소통하는 통로는 나사산<sup>98</sup>)이 된다. 나사산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통하여 天地가 승강운동을 하며 교류하는데, 하강할 때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상승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한편 동양의 천문학에서는 천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환하는 것을 左旋이라 하였다<sup>99</sup>). 西漢 말엽에 나타난 『春秋緯』의 하나인 『元命苞』<sup>100</sup>)에 “하늘은 左旋하고 땅은 右動한다.”<sup>101</sup>)고 하였으며, 後漢 시대에 하늘은 북극을 중심으로 左旋 즉 동에서 서로 회전한다는 인식이 이미 있었고<sup>102</sup>), 『史記』와 『前漢書』에 실린 顛項曆과 三統曆(太初曆)의 수준들<sup>103</sup>)을 감안하건데, 『難經』이 成書되던 시기에 이

미 ‘天道左旋’의 인식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後代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인식은 의학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왔으니, 『此事難知』에서는 “外焉, 天道左旋而西, 中焉, 地道右旋而東”<sup>104</sup>)이라 하여 하늘(천체)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을 ‘左旋’이라고 하였고, 『醫學入門』에서는 “天道左旋, 自然之序也”<sup>105</sup>), “天氣左旋而下降, 地氣右旋而上升”<sup>106</sup>)이라고 하여 天地의 氣의 순환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으니, 전<sup>107</sup>)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은 左旋한다고 하고, 日月星辰은 右行한다’고합니다.……북극성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는 하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만,……보는 방향에 따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무조건 하늘이 도는 방향을 左旋이라 하고…….” 다시 말하면, 관찰자가 북극성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은 반시계방향으로 도는데 이를 ‘左旋’이라고 표현하고, 북극성을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은 시계방향으로 도는데 역시 이를 ‘左旋’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동양 천문학에서 나타난 이 ‘左旋’의 개념을 앞서 살펴보았던 고기압·저기압의 운동성 및 방향성과 접목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횡단면의 흐름	上下의 흐름
고기압(天氣하강)	시계방향(左旋)	하강기류(下降)
저기압(地氣상승)	반시계방향(右旋)	상승기류(上升)

표 1. 기압을 통해 살펴본 天氣左旋而下降과 地氣右旋而上升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天氣는 左旋(시계방향)하면서 하강하고 地氣는 右旋(반시계 방향)하면서 상승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아울러 左旋과 右

96) 이승호. 기후학. 서울. 푸른길. 2007. pp.143-144.  
97) 이승호. 기후학. 서울. 푸른길. 2007. p.144.  
98) 나사산 : 나사에서 솟아나온 부분. 나선 형태로 되어있다.  
99) 김신형, 장우창, 정창현. 『黃帝內經』의 天文學에 關한 研究: 秦漢 時代의 天文學과 『黃帝內經』에 나타난 天文學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2). p.76.  
100) 趙翼 지음. 박한재 옮김. 二十二史劄記. 서울. 소명출판. 2009. pp.299-300.  
101) 부득이하게 '김영식 편자.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 서울. 創作社. 1986. p.150.'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  
102) 김영식 편자.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 서울. 創作社. 1986. pp.140-141.  
103) 이은성 지음. 曆法의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p.19-22.

104) 王好古 撰. 此事難知(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272.  
105) 李梴 編著.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234.  
106) 李梴 編著.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316.  
107) 전창선, 어윤형.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 서울. 와이젬리. 2012. p.67.

旋을 유발하는 지구의 自轉이 없을 수 없고 천지간에 氣의 승강 또한 없을 수 없다면, 이는 左·右旋과 승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즉, 左旋한다는 것은 하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右旋한다는 것은 상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모형을 天人相應적 관점에서 인체에 적용하였을 때, 인체 내에서도 역시 똑같은 氣의 승강운동이 나선의 형태를 띠며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 IV. 고찰

腎臟이 藏하고 있는 精은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sup>108)</sup>라는 수렴기능을 통하여 저장되고, 저장된 精은 ‘氣化’라는 일종의 발산기능을 통하여 인체가 필요로 하는 氣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腎臟은 수렴과 발산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수렴기능은 『內經』으로부터 『難經』에 이르도록 전해져 오는 水臟으로서의 腎의 기능이라 할 수 있으니, 腎主納氣나 腎藏精 등이 이 기능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발산기능은 『素門·宣明五氣論』의 “腎藏志”<sup>109)</sup>라는 문장을 통해 志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命門이 腎臟을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라는 측면에서 『難經』의 “命門者, 諸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也.”라는 문장의 精神(精神)과 原氣의 발현을 통해 발산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수렴과 발산의 기능을 가진 腎을, 각각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收斂之腎’과 ‘發散之腎’이라고 잠시 이름 붙이고자 한다.

한편 언어는 인간 문화의 소산으로서<sup>110)</sup>, 시간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한다<sup>111)</sup>. 때문에 언어의 분산은 대부분의 문명·문화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sup>112)</sup>, 문화

는 결국 언어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sup>113)</sup>. 즉 문화의 인지방식과 가치관은 어휘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며, 관련단어의 수량은 문화현상과 정비례한다<sup>114)</sup>. 따라서 문화가 발전적으로 변화할수록 그에 따른 용어의 세분화와 수량의 증가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難經』의 命門과 腎間動氣를, ‘의학’이라는 문화의 발달에 따른 새롭고 세부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즉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腎間動氣는 ‘인체 생명활동의 원동력’ 내지는 ‘사람의 근본이자 생명’을 뜻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命門은 腎臟의 특정 부분을 강조·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內經』과 『難經』에서 腎臟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같고, 그것이 收斂之腎의 속성과 연관 지어 설명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精神·原氣가 발현되는 發散之腎으로서의 腎臟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학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이 ‘(右者爲)命門’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右者爲)命門’은 腎臟의 發散機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는 것이다.

서론에서 논자는 ‘左·右’와 ‘間’이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체를 평면적으로 보아 구분한 左·右의 개념으로는, 『難經』원문(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에 대한 부정 없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한 과정 중에 『難經集注』와 『難經今釋』에서는 ‘左·右’를 ‘左尺’과 ‘右尺’으로 인식하였고 『難經正義』에서는 ‘氣脈’으로 인식하여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에, 논자는 ‘左·右’를 입체적 관점에서 左旋과 右旋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收斂之腎으로서의 腎’과 ‘發散之腎으로서의 命門’이라는 인식과, 크게는 天

108)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8.

109)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210.

110) 金芳漢. 언어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92. p.309.

111) 박영수 외 14인. 언어학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3. p.351.

112) 박영수 외 14인. 언어학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3. p.24.

113) 권경근 외 9인.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서울. 박이정. 2009. p.241.

114) 陳章太, 於根元 著, 張運勳 譯. 社會言語學概論. 서울. 차이나하우스. 2008. p.241, 242.

地, 작게는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氣의 左旋而下降과 右旋而上升하는 입체적인 개념의 인식, 이 두 가지 인식을 복합적으로 융합시켜 36難에서 언급된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左旋하면서 하강하는 것은 腎(收斂之腎)이고, 右旋하면서 상승하는 것은 命門(發散之腎)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左旋이 하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右旋이 상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승강운동의 색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물질적 존재에 있어서의 존재여부는 승강운동의 有無가 관건이 되고<sup>115)</sup>, 인체가 가지는 승강운동은 승강의 氣機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sup>116)</sup>, 이 ‘근본적인 힘’은 곧 ‘인체 생명활동의 원동력’ 내지는 ‘사람의 근본이자 생명’에 해당되는 腎間動氣 즉 原氣인 것이다. 그리고 이 原氣는 수렴(腎, 陰)이나 발산(命門, 陽)처럼 陰陽중의 한 가지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陰陽이 混在해 있는 太極의 상태로 보인다. 그렇다면 腎間動氣의 ‘間’은 단순히 兩腎 사이를 뜻하는 것 외에 太極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左旋·右旋과 腎·命門 및 腎間動氣의 관계를 종합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難經』원문	其左者爲腎	腎間動氣	右者爲命門
승강운동	左旋而下降	間	右旋而上升
기능	收斂	승강의 원동력	發散
명칭	腎	原氣	命門
속성	陰	太極	陽

표 2.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본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左腎右命門說’의 주된 배경인 36難을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原文】三十六難曰：藏各有一耳，腎獨有兩者，何也？然，腎兩者，非皆腎也。其左者爲腎，右者爲命

門，命門者，諸神精之所舍，原氣之所繫也。男子以藏精，女子以繫胞。故知腎有一也。

【해석】三十六難에 이르기를 臟은 각각 하나가 있는데, 腎은 홀로 두 개가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네, 腎 두 개가 모두 腎인 것은 아닙니다. 그 左旋하면서 하강하는 것은 腎(收斂之腎)이고, 右旋하면서 상승하는 것은 命門(發散之腎)입니다. 命門은 모든 神精이 머무르는 곳이요, 原氣가 매인 바입니다. 男子는 精을 貯藏하고 女子는 胞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故로 腎(收斂之腎)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V.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腎臟은 물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 左腎과 右腎을 가지고 있다.
2. 腎臟은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收斂之腎’과 ‘發散之腎’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難經』에서는 이를 각각 ‘(其左者爲)腎’과 ‘(右者爲)命門’으로 표현하고 있다.
3. ‘左旋’은 관찰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천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下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右旋’ 역시 ‘上升’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승강운동의 색다른 표현이며, 인체 내에서 승강의 氣機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腎間動氣이다.
4. 36難에서 언급된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에서의 ‘左’는 ‘左旋而下降’의 뜻이며, ‘右’는 ‘右旋而上升’의 뜻이다. 즉 ‘左旋而下降’하는 것은 腎(收斂之腎)의 가능이고 ‘右旋而上升’하는 것은 命門(發散之腎)의 기능이다.
5. 腎間動氣는 하강(收斂之腎, 其左者爲腎)과 상승(發散之腎, 右者爲命門)의 사이(間)에 있는 原氣를 말한다.

115) 문수영 외 3人. 升降의 韓醫學의 概念과 人體 및 自然界의 升降運動에 대하여.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0. 4(1). p.106.

116) 정호진. 升降의 原動力에 관한 考察:脾胃와 命門을 中心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 14(1). p.55.

## 참고문헌

### <논문>

1. 강병기. 命門相火에 對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81. 2(1).
2. 김신형, 장우창, 정창현. 『黃帝內經』의 天文學에 關한 研究:秦漢 時代의 天文學과 『黃帝內經』에 나타난 天文學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2). p.76.
3. 문수영 外 3人. 升降의 韓醫學의 概念과 人體 및 自然界의 升降運動에 대하여.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0. 4(1). p.98, 104, 106.
4. 신흥목, 김길원. 命門에 關한 文獻的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1992. 7(1).
5. 은석민. 命門學說에 對한 知覺論적 해석. 대한한의학회지. 2011. 24(6).
6. 이용태, 김완희. 命門에 對한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1988. 3(2).
7. 정호진. 升降의 原動力에 關한 考察:脾胃와 命門을 中心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0. 14(1). p.55, 57.
8. 張宇鵬. 『黃帝內經』藏象學理論體系의 主要內容與結構簡析.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1). p.127.

### <단행본>

1. 권경근 外 9人.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서울. 박이정. 2009. p.241.
2. 金芳漢. 언어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92. p.309.
3. 김영식 편자.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 서울. 창작사. 1986. p.150. pp.140-141.
4. 김완희, 최달영 共編. 臟腑辨證論治. 서울. 성보사. 1988. p.78.
5. 박영수 外 14人. 언어학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3. p.24, 351.
6. 송은영. 코리올리가 들려주는 대기현상 이야기. 서울. 자음과모음. 2005. pp.26-35.
7.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191. pp.615-616,

616-617.

8. 이승호. 기후학. 서울. 푸른길. 2007. p.97, 144, 161. pp.98-99, 143-144.
9. 이은성 지음. 曆法의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p.19-22.
10. 전창선, 어윤희.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 서울. 와이즈리. 2012. p.67.
11. 최승훈 譯. 難經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1998. p.194.
12. 홍원식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p.95.
13.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편자.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14. 張世賢 註, 吳棋鏞 譯. 校正圖註八十一難經. 원주. 영서신문사. 1999.
15. 唐湘濤 編著.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民國72年. p.145, 250.
16. 本間祥白 著.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p.245.
17. 黃元御 撰. 難經懸解(黃元御醫書十一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8.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8, 18, 42, 210, 492. pp.20-21.
19. 王好古 撰. 此事難知(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272.
20. 李梴 編著.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234, 316.
21. 池田政一 지음, 노지연 옮김. 황제내경의 난경. 서울. 청홍. 2002.
22. 蔡陸仙 編. 中國醫藥匯海·難經. 서울. 성보사. 1976.
23. 秦越人 撰, 滑壽 註. 難經本義(欽定四庫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450, 451, 453, 454, 455, 457, 460, 463, 479, 480, 481, 482, 483, 484, 488, 492, 502, 503. pp.499-500.
24. 滕萬卿 撰. 難經古義(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5, 111.

25. 葉霖 撰. 難經正義(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7, 189.
26. 丁錦 著. 古本難經闡註(珍本醫書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1, 225.
27. 南京中醫學院 編著. 難經譯釋. 서울. 정담. 1993.
28.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74年. p.190, 270.
29. 加藤宗博 著.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30.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31. 遲華基 外3人 編著. 難經臨床學習參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56.
32. 徐大椿 撰. 難經經釋(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8, 60.
33. 陳章太, 於根元 著, 강윤옥 譯. 社會言語學概論. 서울. 차이나하우스. 2008. p.241, 242.
34. 趙翼 지음. 박한제 옮김. 二十二史劄記. 서울. 소명출판. 2009. pp.299-300.